

2016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지원사업 성과 보고서

〈연구과제 개요〉

연구 과제명	충남노인의 복지의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탈빈곤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기간	2016. 10. 04 ~ 2017. 02. 28			
연구참여자	이상진			
연구책임자 (책임)	이름	이상진	핸드폰	
	소속 (직업)	서산석림사회복지관	e-Mail	welfare-i@hanmail.net

충남노인의 복지의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탈빈곤 방안을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필요성)

○ 충남 인구의 고령화와 충남 노인인구의 빈곤화가 심각함. 이는 충남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충남 인구의 고령화와 충남 노인인구의 빈곤화가 심각하고, 이는 충남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빈곤수준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13).

- 2015년 현재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3.1%지만, 충남은 2009년도에 이미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15년 기준 16.5%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고, 이는 전국 5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5).

- 충남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학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65세 이상 충남 노인인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높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즉, 충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32.5%로, 전국 수준 30.6%에 비해 1.9%p가 높은 수준이다(충청지방통계청, 2015). 이러한 노년인구의 빈곤화 수준은 충청권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대전이 24.7%, 세종 36.5%, 충북이 31.6%로 세종시 다음으로 높게 타났다. 따라서 충남 인구의 고령화와 충남 노인인구의 빈곤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수가 증가하고, 개인이 ‘노년기’로 보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빈곤화로 인한 노인집단내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이들에 대한 막대한 복지재정의 지출은 충남 인구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노인인구의 빈곤화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생애 기간 동안 누적된 결과이며 남

은 생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노인빈곤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OECD, 2013) 그간 노인빈곤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발표되었다(김수영·이강훈, 2009; 김수완·조유미, 2006; 석상훈, 2009; 석상훈·김현수, 2012; 유경근·곽종형, 2014; 최옥금, 2010; 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 그런데, 이 연구들은 노년기 빈곤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노년기의 삶은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회구조로부터의 혜택과 불리가 일생을 통해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빈곤을 이해하고자 할 때, 노년기는 생애특성상 단지 한 단계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체의 산물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노년기 빈곤이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2015)의 연구에 의하면 5년 이상 장기간의 소득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이 4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노년기 빈곤은 생애과정을 통해 누적되고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애과정을 통해 빈곤지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상대적 소득지위가 변화하는 양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빈곤지위이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노인빈곤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증가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사회복지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방재정 저압박 및 고압박 지자체의 분류’에 따르면, 충남의 금산, 서천, 홍성은 고압박 지자체에 속하는데, 이러한 농촌형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청소년분야의 사회복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일, 2015).
- 그런데 이러한 지출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인데,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세대 간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사회갈등 때문에 치러야 할 갈등비용이 연 82조에서 246조로 추산되기도 한다(박준·김용기·이동원·김석빈, 2009).

○ 따라서 노인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빈곤노인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갈등, 더 나아가 사회갈등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필수적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을 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서비스 만족감에서 그 해답을 찾

아보고자 함

- 그 간의 복지의식, 복지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영란, 1995; 김희자, 1999; 안치민, 1995; 조돈문, 2001; Arts & Gelissenm, 2001; Edlund, 1999; Svallfors, 2004)은 계급과 복지의식 간의 관계, 혹은 소득불평등의 추이나 그 특성, 노년기로의 이행에서 나타는 소득불평등 등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빈곤화가 심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탈빈곤 방안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 노년기에 근접할수록 일생을 통해 누적된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발현’ 되는데, 노년기에 발생하는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외적인 개입, 즉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그 사회의 지향에 맞게 완화시켜야 한다. 노년기에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빈곤선의 120% 내외 수준에서 증가할 경우 빈곤에 재진입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서 안정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석상훈, 2010). 따라서 복지의식을 국가적 재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만족감에서 빈곤노인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노인빈곤은 복지의식 외에도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 이 변수들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등과 같은 변인이 노년기 빈곤과 관련되고(이주미·김태완, 2014; 정의철·김진욱, 2007), 취업형태, 취업자 수, 총소득, 금융소득, 부채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도 노년기 빈곤과 관련된다(남상섭, 2005; 여유진·김태완, 2006; Jenkins & Wallace, 1995; Lerman & Yitzhaki 1985).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세대, 여러 계층이 공존하는 삶을 살기 위해 충남의 노인빈곤 문제에 주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충남 노인의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 만족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탈빈곤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복지패널 2007년 2차년도 자료와 2013년 8차년도 자료를 결합하여

첫째, 충남 노인의 빈곤율 및 빈곤지위이동(빈곤탈출집단 대 빈곤지속집단)의 변화를 파악하고,

둘째, 충남 노인의 복지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셋째, 빈곤지속집단과 빈곤탈출집단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서비스이용 및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며,

넷째, 충남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가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섯째, 충남 빈곤노인의 탈빈곤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 방법

○ 분석자료

-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가구용 조사 중 가구 및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응답한 충남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인구주택총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를 참고로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 각 3,500가구씩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선정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은 읍면지역의 농어촌까지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유형을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한 조사이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중 2007년 2차년도 자료와 2013년 8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2차년도와 8차년도 동일응답자 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137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빈곤지위이동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지속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07년 2차년도 자료에서 빈곤집단이 2013년 8차년도에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 중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조사하여, 2차년도와 8차년도에 모두 빈곤집단인 경우 빈곤지속집단으로, 2차년도에 빈곤집단이 8차년도에 비빈곤집단인 경우 빈곤탈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빈곤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빈곤연구에서 중위소득 50~60% 수준의 개념을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를 빈곤으로 개념화하였다.

- 복지의식은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로 측정하였는데, 2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

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생계비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지원 등 총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용 만족도는 이용 서비스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 ‘매우 불만족’ 부터 5점 ‘매우 만족’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하였다.

- 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2차년도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를 통해 살펴보았고 교육수준은 무학과 유학으로, 혼인상태는 배우자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자택여부, 가계총소득, 금융자산총액, 부채총액을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문헌고찰, 한국복지패널데이터 분석, 문헌고찰과 분석을 근간으로 한 충남노인 탈빈곤 방안 제시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

1) 문헌고찰

빈곤, 노인빈곤의 특성, 빈곤지위이동, 소득불평등, 복지의식, 복지태도, 복지정치,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등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2) 패널데이터 분석

- . 충남 노인의 빈곤율 변동 분석
- . 충남 노인의 빈곤지위이동 분석
- . 빈곤지속집단과 빈곤탈출집단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의식의 차이를 분석
- . 충남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의식이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충남 노인의 탈빈곤 방안 제시

3. 연구 결과

1) 충남 노인의 빈곤율 및 빈곤지위 이동

한국복지패널 2007년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충남 지역의 노인은 327명이었고, 그 중 빈곤노인은 189명으로 57.8%, 비빈곤노인은 138명으로 42.2%로 나타났다. 2007년 2차년도에 조사에 응답한 빈곤노인 중 2013년 8차년도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32명을 제외한 137명을 분석해보면 빈곤지위가 변한 노인이 23명 16.8%로 나타났다. 빈곤지위가 이동한 노인 중 빈곤탈출집단에 속한 노인은 16.8%이고, 빈곤지속집단에 속한 노인은 83.2%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표 1]).

[표 1] 충남노인의 빈곤율 및 빈곤지위이동

		빈도(명)	백분율(%)
빈곤율 (n=327)	빈곤노인	189	57.8
	비빈곤노인	138	42.2
빈곤지위이동 (n=137)	빈곤탈출집단	23	16.8
	빈곤지속집단	114	83.2

2) 충남 빈곤지속집단과 빈곤탈출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인식의 차이

2차년도 패널데이터로, 충남 빈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및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의 차이를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자택여부, 가계총소득, 금융자산총액, 부채총액, 복지서비스이용수준 및 만족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하지 않아 카이제곱값은 제

시하지 않았고, 해석 역시 집단별로 제시하였다([표 2]).

먼저, 빈곤탈출집단 노인을 보면, 전체 23명의 대상자 중 남성이 30.4%, 여성이 69.6%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0세-79세가 42.2%로 69세 이하 및 80세 이상보다 많았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노인이 69.6%로 무학인 노인 30.4%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5.2%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더 많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60.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39.1%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은 1명이 56.5%로 없거나 2명이상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82.6%로 그렇지 않은 노인 17.4%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계총소득은 2,000만원 이상이 43.5%,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0.4%, 1,000만원 미만 26.0%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총액은 500만원 미만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26.1%, 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7.4%였다. 부채총액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9.1%,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1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지속집단 노인의 경우, 전체 114명의 대상자 중 남성이 31.6%, 여성이 68.4%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0세-79세가 55.3%로 69세 이하 및 80세 이상보다 많았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노인이 57.9%로 무학인 노인 42.1% 보다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1.4%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더 많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41.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58.8%로 무직인 노인이 더 많았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은 1명이 50.0%로 없거나 2명이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70.2%로 그렇지 않은 노인 29.8%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계총소득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43.9.5%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상이 30.7% 1,000만원 미만 25.4%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총액은 500만원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28.1%, 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1.9%였다. 부채총액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7.5%,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4.9%,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17.5%로 나타났다([표 2]).

[표 2]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지속집단의 차이(n=137)

			빈곤탈출집단 n(%)	빈곤지속집단 n(%)
사회인구학 적 특성	성별	남	7(30.4)	36(31.6)
		여	16(69.6)	78(68.4)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65-69	8(34.8)	39(34.2)
		70-79	11(42.2)	63(55.3)
		80세이상	4(7.4)	12(10.5)
	교육수준	무학	7(30.4)	48(42.1)
		기타	16(69.6)	66(57.9)
	혼인상태	배우자있음	15(65.2)	70(61.4)
배우자없음		8(34.8)	44(38.6)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무직	9(39.1)	67(58.8)
		경제활동함	14(60.9)	47(41.2)
	경제활동 가족수	없음	7(30.4)	32(28.1)
		1명	13(56.5)	57(50.0)
		2명이상	3(13.0)	25(21.9)
	자택여부	자가	19(82.6)	80(70.2)
		기타	4(17.4)	34(29.8)
	가계 총소득	999만원이하	6(26.0)	29(25.4)
		1,000만원~1,999만원	7(30.4)	50(43.9)
		2,000만원이상	10(43.5)	35(30.7)
	금융자산 총액	없음	4(17.4)	25(21.9)
		1만원~499만원	13(56.5)	57(50.0)
500만원이상		6(26.1)	32(280.1)	
부채총액	없음	10(43.5)	77(67.5)	
	999만원이하	9(39.1)	17(14.9)	
	1,000만원이상	4(17.4)	20(17.5)	

다음으로 빈곤탈출집단 노인과 빈곤지속집단 노인 간의 복지의식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표 3]), 복지서비스이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복지서비스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빈곤탈출집단에 비해 빈곤지속집단이 2차년도 복지서비스이용을 더 많이 하였으나 복지서비스이용 만족도에

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3]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지속집단의 복지의식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t 값
복지서비스 이용	빈곤탈출집단	.63(1.52)	-3.45 ^{**}
	빈곤지속집단	2.13(2.97)	
복지서비스 만족도	빈곤탈출집단	3.53(.51)	-.790
	빈곤지속집단	3.93(1.09)	

^{**}p<.01

따라서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유지집단의 2차년도 데이터를 통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두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와 복지서비스이용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고 단지 두 집단 간 복지서비스이용의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이용의 차이가 두 집단의 차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 충남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의식이 빈곤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가 빈곤지위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를 투입하고, 경제적 특성변인으로는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자택여부, 가계총소득, 금융자산총액, 부채총액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63.9%로 높았고, 분류의 정확도는 16.8%에서 84.0%로 상당히 상승하였다([표 4]).

먼저, 충남 빈곤노인의 경제적 특성 변인 중 경제활동상태와 경제활동가족수가 유의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는 빈곤지위이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에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2013년도에 빈곤집단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4.7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가족수는 빈곤지위이동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007년도에 경제활동가족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2013년도에 빈곤집단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3.16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 충남 노인의 빈곤지위이동 결정변인 (N=137)

		1=빈곤탈출집단, 0=빈곤지속집단			
		B	S.E	Wald	Exp(B)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a	-.525	.641	.672	.592
	연령	.028	.022	1.565	1.028
	교육수준 ^a	-.598	.634	.887	.550
	혼인상태 ^a	-.200	.728	.076	.819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a	1.553	.729	4.545*	4.727
	경제활동가족수	-1.151	.562	4.188*	.316
	자택여부 ^a	.785	.797	.969	2.191
	가계총소득	.000	.000	.073	1.000
	금융자산총액	.000	.000	.848	1.000
	부채총액	.000	.000	.356	1.000
복지의식	복지서비스 이용	-.649	.379	2.931 ⁺	.523
	복지서비스만족도	-.836	.430	3.777*	.433
chi-square		85.453***			
Nagelkerke R ²		.639			
분류의 정확도		84.0%			

⁺p<.01, *p<.05, ***p<.001

^a더미코딩: 성별(남=1), 교육수준(무학 =1), 혼인상태(유배우자=1),
자택여부(자가=1), 경제활동상태(경제활동중=1)

다음으로 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역시 빈곤지위이동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에 복지서비스를 1가지 더 이용할 때 마다 2013년도에 빈곤집단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1.912배 감소하며, 2007년도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마다 2013년도에 빈곤집단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2.30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만족도 중에서 충남

노인의 빈곤지위이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의 경제활동상태였다.

4) 충남 빈곤노인 탈빈곤 방안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충남 빈곤노인의 탈빈곤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빈곤노인의 빈곤지위이동에 경제적 특성 변인 중 경제활동상태와 경제활동가족수가 유의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는 빈곤지위이동에 정적인 영향을, 경제활동가족수는 빈곤지위이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득은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다. 경제활동상태는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빈곤지위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활동가족수의 부적인 영향은 소비지출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는 있지만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일자리와 넉넉하지 않은 경제수입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소비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빈곤지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빈곤노인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데, 정부의 빈곤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의 구조를 보면, 경제적 자립이 아닌 활동지원정도의 부수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빈곤지위 이동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빈곤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생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빈곤지위이동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많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낙오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비행 등에 관여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이러한 빈곤지위에 있는 대상자에게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의존하게 하여 근로의욕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빈곤지위에 있는 노인의 빈곤지위변화를 유도하려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경제활동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007년 2차년도에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가족수,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은 2013년도 충남 노인의 빈곤지위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 빈곤지위이동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의 경제활동상태였다. 빈곤노인의 취업형태, 취업자 수, 총소득, 금융소득, 부채 등과 경제적 특성도 노년기 빈곤과 관련된다는 김용성 등(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노인의 빈곤지위이동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공적부조나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소득지원 및 경제활동기회 부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들의 수준을 현실화 시키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과제

1) 본 연구에서는 빈곤탈출집단과 빈곤지속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특성을 가진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충남 전체노인의 빈곤과 비빈곤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빈곤탈출과 빈곤지속만이 아니라,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집단과 비빈곤상태가 유지되는 집단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한다면, 충남 빈곤노인의 특성이 보다 명확히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연구에서는 충남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지위이동을 결정짓는 변수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충남 노인의 탈빈곤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과연 충남 노인의 빈곤수준이 전국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국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노인의 관점에서 충남 노인의 빈곤수준 및 빈곤지위이동을 파악한다면, 우리나라 빈곤정책 수립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수완, & 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 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단

일호), 5-37.

- 김수영, & 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 1559-1575.
- 김영란. (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사회와 문화, 9(1), 229-249.
- 김용성. (2005). 빈곤 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 통합 모형 개발: 인구 및 가구 구조와 교육 수준 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 개발 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 & 정진욱.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원, 35(3), 71-102.
- 김희자. (1999). 연구논문: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단일호), 106-124.
- 남상섭. (2005). 1990년대 후반기 소득분배 변화요인 분석. 경제연구, 23(3), 27-53.
- 박준, 김용기, 이동원, & 김선빈.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20.
- 석상훈. (2009).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77-99.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단일호), 335-352.
- 석상훈, & 김현수. (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3), 99-124.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사회와 문화, 9(1), 211-227.
- 여유진, & 김태완.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26(1), 95-134.
- 유경근, & 곽종형. (2014). 대도시 노인빈곤층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경영연구, 1(1), 91-107.
- 이주미, & 김태완. (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 복지포럼, (212), 64-73.
- 임성일. (2015). 기획세션: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의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2), 137-161.
- 정의철, & 김진욱. (2007).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57-77.
- 조돈문. (2001). 노동시장과 계급의식 분석: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 연구, 7(1), 157-193.
- 최현수, &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 학, 23, 143-160.

- 충청지방통계청. (2015). 충청지역 2015 고령자 통계, 충청지방통계청.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 통계청.
- Arts, W., & Gelissen, J. (2001). Welfare states,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Does the type really matter?. Acta Sociologica, 44(4), 283-299.
- Edlund, 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 Jenkins, J. C. and Wallace, M, 1996, The Generalized Action Potential of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11, pp.186-208.
-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51-156.
- OECD (2013). “Old-age Income Poverty.” in Pension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 Svallfors, S.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19-138.

5.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복사 및 소모품구입비	40,000원 × 5월	200,000
식비 및 다과비	40,000원 × 1회	40,000
학술대회참가비	60,000원 × 1회	60,000
논문게재비(사사포함)	300,000원 × 1회	300,000
인건비	180,000원 × 5월	900,000
합		1,500,000